

미국 2006년도 세계 육류시장 전망 발표

최근 미국 농업부(USDA)는 내년도 세계 축산물 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에서는 축산물 생산, 공급, 유통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1. 개관

(1)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이 낙관적이어서, 축산물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며 소비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2006년 한 해 동안 세계 경제는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환경이 낙관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농업부는 주요 축산물 생산 국가들에서 육류 가공 및 생산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축산물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이나 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도축 시설 건립이나 현대화, 사육시설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이 축산물 생산과 가공 부문의 성장에 있어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 못한다. 인도네시아의 가금류 부문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에너지 비용 급증, 환율 하락, 사료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이 최소화될 것이며 성장이 제약될 것이다. 2006년도의 1인당 세계 실질 GDP가 증가함으로써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생산도 증가

할 것이다. 특히, 중국, 홍콩, 타이완, 타이 등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육류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육류 수출 국가들의 수출 가격은 질병과 관련된 무역 왜곡 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04년과 2005년 두 해 동안 조류 인플루엔자와 광우병 발병은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주요 가금류 및 쇠고기 수출 국가들의 무역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돼지고기 수출 국가들의 수출 가격이 지난 두 해 동안 큰 폭으로 상승했다.

(3) 환율 조건으로 인해 미국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 달러 환율 약세로 인해, 미국의 육류 및 가금류 수출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200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브라질의 구제역 사태는 현재의 육류 무역 흐름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2005년 10월 브라질 Mato Grosso do Sul 지역에서의 구제역 발병은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부문의 성장을 제약할 것이다. 브라질은 쇠고기 생산 거점을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2006년도의 수출 수요,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수요에 대응할 것이다. Mato Grosso do Sul 지역은 브라질 내에서 중요한 돼지고기 생산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구제역 사태가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주요 축산물 수출 국가들의 닭고기 수출이 쇠고기 수출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주요 수출국들의 닭고기 수출액이 7,500만 톤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시장에 미국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쇠고기 수출 증가세 또한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금육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에는 가금육 무역량이 거의 7%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타이, 미국 등이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2. 생산 전망

2.1 쇠고기

주요 쇠고기 수출 국가들의 2006년도 생산량은 2005년에 비해 약 3% 증가하여 5,3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브라질과 중국의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EU의 쇠고기 생산은 완만한 감소세가 계속될 것이며, 러시아의 경우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뉴질랜드의 쇠고기 생산은 크게 확대되어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량이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의 수출량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사료 작물 공급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쇠고기 재고 감소와 생산 증가율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EU는 2003년부터 쇠고기 수입국이 되었는데, 이는 광우병 사태로 인한 소비 감소가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반면에 생산은 계속해서 감소해왔기 때문이다. EU의 쇠고기 총 생산량은 2006년에도 계속해서 감소하여 7,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U 공동농업정책 개혁으로 인해 보조금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진행되면서 소 사육두수가 감소했으며

가격은 상승했다.

브라질의 쇠고기 생산이 증가하여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다. 쇠고기 관련 산업에 대한 브라질의 수출지향적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2001년에는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11% 정도만이 수출되었다. 2006년에는 그 비중이 21%로까지 증가하여 수출량이 약 1,8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의 쇠고기 생산과 수출이 증가할 여지는 계속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비육우 대부분은 전통적인 품종인데, 교잡을 통한 품종 개량이나 인공 수정 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50% 이상 증가해왔다.

중국의 쇠고기 생산은 2006년에 6% 이상 증가하여 7,6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이 증가하겠지만 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여, 쇠고기 가격은 급등할 것이며 중국의 쇠고기 관련 산업은 크게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가축 질병 방역과 통제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겨져 있다. 중국은 쇠고기 부문을 확대하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초지, 사료 자원, 종우, 수자원, 에너지, 수송수단 등의 자원 부족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5년 7월 18일, 미국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캐나다로부터의 생우 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이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산 생우 수출은 미국에서의 광우병 사태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되지 못했다. 캐나다의 소 수출은 사실상 대부분 미국으로의 수출인데 2006년에 약 90만 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이루어진 130만 두의 70%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쇠고기 관련 부문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이 차단된 결과, 캐나다의 소 관련 산업은 미국 내 쇠고기 가공 산업 부문에 덜 의존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내 도축을 확

대하고 있다.

미국의 쇠고기 생산은 2006년도에 4% 증가하여 1억 1,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로부터의 30개월 령 소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미국 내 도축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돼지고기

전 세계 주요 돼지고기 생산 국가들의 76% 정도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가 2006년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이 3%(9,500만 톤)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06년도에 약 5,100만 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생산 증가는 EU와 러시아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브라질의 돼지고기 생산은 3% 정도 증가하여 2006년 생산량이 2,8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과 관련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쇠고기나 가금육의 무역량이 감소함으로써, 동물 단백질의 대체재로서 역할을 하는 돼지고기 생산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의 돼지고기 생산과 소비 증가는 쇠고기나 닭고기에 대한 대체 효과이기도 하지만, 멕시코 같은 지역에서의 최근 돼지고기 소비 증가는 소득 증대로 인한 효과이다.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은 품종 개량과 사료의 개선에 힘입어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은 종돈 수입량 증대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돼지 재고량 중 종돈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가 강세를 보일 것임을 예측하게 해준다. 중국의 돼지 도축 시설과 돼지고기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또한 증가해왔다. 조인트 벤처를 통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 또한 중국에서의 돼지고기 관련 산업의 효율성과 돼지고기 생산 증대를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EU의 경우, 2006년도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1% 증가하여 2,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신규 회원국들의 돼지고기 생산량 증대와 돼지 도축 시설의 증가에 힘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돼지고기 시장은 현재 생산자들에게 생산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년간의 돼지고기 생산은 수출 시장으로부터의 수요에 힘입은 것이다. 2001년에는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 중 8% 정도만이 수출되었음에 비해,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생산량 중 13% 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거의 1,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가금육

주요 가금육 생산 국가들에서의 생산량은 2006년도에 거의 4% 증가하여 6억 5,6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중국, 인도, 미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생산도 회복될 전망이다. 2006년도에 고유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사료 가격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것이며 가금육 부문 산업의 전후방 통합과 집중화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가금육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촉진될 것이다.

2006년도의 전 세계적인 닭고기 생산 증가에 있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것이다. 미국의 닭고기 생산 증가분 중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비될 것이지만, 수출 또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또한 닭고기 생산 증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국가이다. 브라질 산 닭고기 생산량은 2006년에 5% 증가하여 9,50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두 해에 비해 큰 폭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브라질의 그 같은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수출 경쟁국들이 일본 등의 여러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브라질은 일본에의 닭고기 수출량을 35% 증가시켰다. 그리고 국내 소비 수요 또한 브라질의 육계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멕시코의 닭고기 생산은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22% 증가하여 약 2,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멕시코 내에서의 돼지고기나 쇠고기 생산이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는 것이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멕시코의 가금육 관련 산업은 점점 더 집중화되고 있으며, 통합되고 있으며, 현대화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증대하는 소비를 따라가지 못해왔다. 멕시코의 가금육 소비가 증가해 온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 여타의 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금육 가격, 효과적인 마케팅, 가공식품 이용 증대, 품질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EU의 가금육 생산은 2003년 베네룩스 3국에서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이후 감소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는 있으나, 전체 25개 EU 회원국들의 생산자들과 가공업자들은 EU 확장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중이다. EU의 닭고기 생산은 2006년에는 약간 증가하여 7,7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비해 소비는 느리지만 생산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EU의 닭고기 수입은 거의 5%까지 증가하여 46만 톤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닭고기 생산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해왔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약 84% 증가하여, 2006년 생산량은 1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는 닭고기 산업 부문의 수익성이 좋고, 국내 시장에서의 닭고기 가격이 경쟁력이 있으며, 새로운 수출 시장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타이 같은 남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정부의 도태 명령이나 수출 시장 상실 등과 같은 경제적 충격을 견

덜만한 자본을 갖지 못한 중소 생산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타이의 가금육 재고량은 20~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타이의 중소 규모 가금육 생산자들 중 23% 정도가 최근의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로 인해 시장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수정된다. 2006년에 타이의 닭고기 생산은 110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직전인 2003년 생산량보다 16% 적은 규모이다. 인도네시아의 닭고기 생산 또한 2006년에는 67만 2,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찬가지로 2003년 생산 수준 아래에 머무는 것이다.

3. 소비 전망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에 있는 국가들에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구매량이 늘어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구매력 향상과 더불어, 육류나 낙농 제품 같은 고가의 식품 구매 지출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인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은 육류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1년도에는 주요 돼지고기 소비 국가들의 소비 총량의 50% 정도였다. 2006년도에는 5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EU의 돼지고기 소비량 비중은 2001년에 24%였던 것이 2006년에는 2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육류 수요는 전반적으로 볼 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3.1 쇠고기 소비 전망

전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2006년도에는 쇠고기 소비량이 약 6%(76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같은 소비 증가분 중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서

구 스타일의 식문화가 성행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 밖에도 2006년도에 쇠고기 소비율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들로는 이집트, 홍콩, 한국, 우루과이를 들 수 있다.

3.2 돼지고기 소비 전망

주요 돼지고기 소비 국가들에서의 소비량은 2006년도에 약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찬가지로 그 증가분 중 대부분(76%)을 중국의 소비량이 차지할 전망이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에서의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할 전망이다. 일본에서의 돼지고기 소비는 2% 미만의 작은 폭으로 감소하겠지만, 감소할 것이라는 점 자체가 일본 시장이 재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에 광우병 사태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일본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돼지고기 수요를 경험한 바 있다.

3.3 가금육 소비 전망

쇠고기나 돼지고기와는 달리, 지구적인 수준에서 전망되는 가금육 소비 증가는 한 국가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몇몇 국가들에서 닭고기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증가율이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대비 2006년의 닭고기 소비 증가율이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가들은 브라질(4%), 중국(3%), 인도(16%), 멕시코(5%), 러시아(7%) 등이다. 미국의 경우 3%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주요 소비 국가들에서의 소비 증가분 중 21%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질병 성격과 예방 수단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많은 국가들에서 국내 소비량이 급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더 나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일차적인 소비수준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타이에서는

2003년과 2004년의 국내 소비 급감 이후, 2005년에는 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내산 가금육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2006년에는 7% 증가하여 7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금육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증대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육류상품에 비해 가금육 상품이 경쟁력 있는 상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에서도 가금육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면서 그 수요가 2005년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람의 사망 사고 직후의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2005년 7월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직후에 인도네시아의 가금육 소비는 20% 감소한 바 있다.

4. 무역

4.1 동물 질병의 영향

동물 질병이 발생함으로써 무역이 제한되는 사례들은 전통적인 무역 관계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사태들이 어떤 공급 국가들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지만, 새로이 떠오르는 생산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2001년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무역량의 16%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2006년에는 3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캐나다와 미국이 부재하게 됨으로써, 다른 수출 국가들에게 기회가 생겼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왔다. 그리고 인도나 멕시코 같은 수출국 또한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

주요 수출 국가들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은 2005년과 2006년에 기록적인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는 주로 미국 쇠고기 시장에서의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축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타이와 중국의 가금육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브라질은 일본 닭고기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캐나다와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아시아권 여러 국가들로부터의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의 돼지고기 수출 국가들은 일본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구매량을 늘리게 된 것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

4.2 쇠고기 무역 전망

몇몇 국가들의 경우 쇠고기 수입량은 2%(520만 톤) 증가하여 신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74만 톤 수입, 3% 증가), 러시아(73만 톤 수입, 7% 증가), EU(62만 5,000톤 수입, 2% 증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2006년에는 쇠고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은 경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70만 톤 수입, 1% 감소).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등의 국가들은 2006년에는 각각 6%, 20%, 9%에 달하는 상당한 폭의 수출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쇠고기 시장에서는 환율 조건이 좋고, 질병 발병 경험이 없으며, 낮은 가격에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국가에 쇠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출 국가들이 점점 더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2004년에 아르헨티나는 EU보다도 더 많은 양의 쇠고기를 수출한 바 있는데, 2006년에는 72만 톤 가까이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Mato Grosso do Sul에서의 2005년 구제역 발병은 브라질의 쇠고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제약할 것이다. 브라질은 쇠고기 도축 시설을 구제역 발병이 없었던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2006년의 수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2006년도 브라질의 쇠고기 수출은 2005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약 180만 톤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역으로 인해 수출량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브라질은 여전히 쇠고기 수출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주자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브라질은 물량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쇠고기 상품의 품질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브라질이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에서 선도적인 쇠고기 수출 국가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특화되어 고가의 쇠고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쇠고기 생산은 2006년에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며, 뉴질랜드의 생산량은 6% 증가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쇠고기 수출은 1% 미만 수준에 그칠 것이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생산량 중 수출 물량의 비중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각각 85%와 67%에 달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비육우는 대부분 방목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쇠고기 산업은 곡물 사료를 급여한 쇠고기를 선호하는 일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료 급여 능력을 증진시켜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료 급여 능력은 소 100만 두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조사료가 아닌 농후 사료를 급여 받는 소의 숫자 또한 2006년에는 신기록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공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수출 물량은 2005년과 2006년도의 일본 시장에서의 부족 물량 중 일부분만을 채울 것이다. 이는 일본 시장에서 요구되는 특정 부위(예: 국거리용 쇠고기, 바베큐용 쇠고기) 수요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가 공급해왔던 쇠고기의 품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쇠고기 수입은 2006년도에는 3% 증가한 74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3 돼지고기 무역 전망

조류독감과 광우병으로 인한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돼지고기 수출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은 돼지고기 수요의 강세로부터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2006년도에는 주요 수출 국가들의 돼지고기 수출량 중 25%를 점유할 전망이다. 2001년도의 점유율은 21%였다.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또한 환율 조건과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쇠고기에 대한 대체 수요로부터도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량은 2006년에는 125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의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부터 브라질, 캐나다, EU가 이익을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세 국가의 수출은 각각 115% (수출총량 72만 5,000톤), 51%(수출총량 110만 톤), 28%(수출총량 1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조건이 좋고 국내 사료 공급여건이 양호하며 자원이 값싼 브라질의 경우, 세계 3위의 돼지고기 생산 국가로서의 지위를 잘 유지할 것이다. 브라질의 수출액은 러시아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05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러시아 시장은 브라질산 쇠고기 수출액의 65%를 소화했다. 브라질은 또한 SPS 협정 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여타의 비 전통적인 시장들에도 수출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EU의 돼지고기 생산은 2006년에는 한계점에 달할 것이지만, 수출량은 1% 증가하여 1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러시아에 대한 폴란드의 돼지고기 수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EU은 세계의 주도적인 돼지고기 수출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주요 시장에서의 점유율 28%를 유지할 것이다.

4.4 가금육 무역 전망

2006년은 주요 가금육 수출국가들의 수출 총량이 740만 톤을 넘어서는 해가 될 것이다. 이는 2005년에 비해 거의 7%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타이,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의 가금육 무역량이 증가할 것이다.

미국은 2006년도에 주요 닭고기 수출국들 중에서도 수출 시장 점유율 34%를 유지하는 선도적인 국가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지만, 그 위치는 점점 침식당할 것이다. 2001년에 미국은 닭고기 수출 시장 점유율 45%를 기록했었다. 2006년 미국의 닭고기 수출은 2% 정도 증가하여 2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타이의 닭고기 수출은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2006년에는 2005년의 1/3 수준까지 회복하여 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선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타이 닭고기 수출업체들은 가공 시설에 투자하는 등 생산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타이가 수출 회복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타이 산 닭고기 상품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EU 같은 타이의 전통적인 수출 시장에서, 가공된 닭고기 상품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가공 닭고기 상품은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 같은 새로운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2006년에 7% 증가하여 3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 브라질은 최근 3년간 수출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닭고기 수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자료: 미국 농업부(USDA)
(김정섭 jskkjs@empal.com 010-7339-254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